

금융위기 여파로 페루 광산업계 투자 감소와 인력감축 단행

- 최근 페루 광산업계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 및 국제금융 위기 여파로 개발 프로젝트 연기, 지출 감소, 인력 감축 및 생산 감소 등을 단행
  - 올 상반기이후 구리, 납, 아연, 주석 등의 국제 광물거래가격 하락으로 광산업체 수익률이 저하되고,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음
  - 투자자금 대비 수익률 저하는 광산업체를 심각한 자금난에 빠뜨려, 이미 100여 개가 넘는 소규모 광산업체가 투자계획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거나 취소를 검토
  - 미국업체인 Freeport Mc Moran Copper & Gold는 '09년 5%, '10년 13% 등의 생산 감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스위스 광산업체 Glencore는 2009년 1/4분기에 20%의 인력감축을 통해 지출 감소를 계획하고 있고 이미 리마에 위치한 Rosaura 광산은 조업을 중단한 상태
  - 아울러, 금융위기와 원자재가격 하락이 광산 탐사프로젝트에까지 영향을 미쳐, 카하마르카에 위치한 야나코차 광산도 쿡가 프로젝트 진행을 연기할 계획
- 한편, 페루광산·금속·제철노조는 10월 이후 45일간 1500명 이상의 광산업계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이런 추세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동시에 현재까지 광산업계 노동자의 10%인 1만5000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
  - 광산·석유·에너지협회는 이미 여러 업체가 인력감축을 단행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업체에 인력감축내용 및 금융위기와 금속가격 하락으로 인한 업체의 지출 감소 계획을 협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 상태

- '08년 3/4분기 현재 대부분 페루 광산업체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최대 동광업체 Southern Copper사의 3/4분기 영업이익이 2/4분기 대비 8만 달러 감소했음.

### 업체별 영업이익 추이

(단위 : 천 달러)

업체명	'08년 2/4분기		'08 3/4분기	
	판매	수익	판매	수익
Southern Peru	864.2	393.2	772.8	310.6
Minsur	615.4	335.0	639.3	298.7
Cerro Verde	687.1	301.3	411.2	165.4
Barrick	330.6	157.6	348.0	162.6
Yanacocha	406.4	106.0	412.0	103.0
Buenaventura	141.2	121.7	139.0	100.5
Volcam	134.3	59.6	210.3	34.9
Los Quenuales	49.7	3.4	47.1	0.7
Shoungang	360.1	129.7	432.4	127.7
El Brocal	56.0	11.5	47.8	14.9
Milpo	68.7	21.4	55.6	8.8
Atacocha	30.4	1.0	24.8	-5.7

자료원 : 페루 국세청, KOTRA 등

<상파울루 사무소 제공>